

'제1회 전북학생 문학상' 공모전 개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18~22일 초·중·고 학생 작품 접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제1회 전북학생 문학상'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는 문화적 사유를 통해 학생들의 창의적·비판적 사고를 함양하고, 문학에 재능과 관심이 있는 학생들에게 문학작품 창작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다. 참가 대상은 도내 초·중·고교 학생이며, 공모 분야는 시, 소설, 수필 등 3개다.

시(동시 포함)는 초·중·고교생, 소설(동화 포함)은 초 4~6·중·고교생, 수필은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작품을 접수한다. 공모전 주제는 '내 삶을 바꾼 깨달음의 순간(경험)'이다. 공모전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은 전북교육청 누리집 공지사항(1510번)을 참고해 분야별 출품 형식 및 규격, 제출 방법에 맞춰 작품을 작성한 뒤 개인정보동의서 등 제출 서류를 갖춰

오는 18일부터 22일까지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이후 전북교육청은 독창성, 표현력, 구성 및 형식, 적합성 등을 평가한 뒤 총 45개 작품을 선정해 교육감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서거석 교육감은 "올해 처음 개최되는 전북학생 문학상을 통해 우리 학생들의 독서 습관을 형성하는 것은 물론, 인문학적 인식의 지평이 확장되길 기대한다"면서 "문학에 소질있는 학생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문화관광재단-한국교육방송공사, 협약 체결

EBS 방송 인프라 연계 전북자치도 문화·관광·역사 홍보 등 협력 구축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은 7일 한국교육방송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운)은 7일 한국교육방송공사(사장 김유열, 이하 EBS)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은 EBS 방송 인프라와 연계해 전북자치도의 문화·관광 자원을 널리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주요 협약 내용은 △EBS 제작 콘텐츠를 활용한 전북자치도 문화·관광·역사 홍보 및 활성화 촉진 △인구소멸위기에 따른 협력사업 발굴 및 지원 도모 △전북자치도 문화·관광의 교육적 접근을 위한 공동 노력 △협약체 구성을 통한 상호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특히 EBS는 '여행본색', '한국기행'과 같은 대표 여행 프로그램을 통해 전북의 매력과 고유의 문화·관광 자원을 생생하게 소개할 예정이다. 김유열 사장은 "전북자치도는 우리나라의 역사와 전통을 품고 있는 전통문화의 보물창고"라며 "EBS가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저출산 문제와 인구소멸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재

단과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경운 대표이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문화와 일상이 어우러진 전북자치도의 아름다움이 널리 알려지길 바란다"며 "양 기관이 힘을 합쳐 전북자치도의 문화, 관광 경쟁력을 확보하고, 미래사회 유능한 인재 육성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전북자치도 역사관광을 주제로 도내에 산재해 있는 이성계 유적을 테마로 제작한 프로그램인 여행본색 '왕이로소이다'가 오는 28일 15시 EBS 채널을 통해 방영될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전북여성가족재단, 임흥택 작가 특별 강연

전북여성가족재단(원장 전정희)은 8일 저녁 7시 '평온(평등 ON)하고 평탄(평등 탄탄)한 조직 생활'이라는 주제로 임흥택 작가 특별 강연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강연은 지역의 성평등 교육·진흥·연구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들의 협의체인 성평등교육진흥협의회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7일 재단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8년째 이 사업에 참여해 해마다 시의성 있는 주제로 강연을 개최함으로써 성별과 세대를 아우르며, 연대와 공감의 네트워크를 확대해 나가고 있

다. 이날 강연자로 나서는 임흥택 작가는 「90년생이 온다」, 「2000년생이 온다」의 저자로, "유연성과 융통성을 중요시하는 아날로그 세대와 달리, 2000년생으로 대표되는 디지털 세대는 원칙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세대 간 충돌이 있을 수 있다"며 "특정 세대를 이해한다는 관점이 아닌 '시대의 변화를 안다'는 관점으로 접근해 젊은 세대를 위한 문화가 아닌 지금의 시대에 맞는 우리만의 규칙을 새롭게 만들고, 이를 철저히 지키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은성 기자

'아프리카 리듬과 열정을 Anya Fo'

김제문화예술회관, 22일 공연



김제문화예술회관에서 자연의 원초적 울림 '아프리카 리듬과 열정을 Anya Fo!'가 오는 22일 오후 7시 대공연장에서 펼쳐진다. 이번 '아프리카 리듬과 열정을 Anya Fo!'는 서아프리카의 전통리듬과 역동적 움직임으로 아티스트와 관객이 주고받는 가장 자유로운 에너지의 소강한 공연이다. 역동적인 춤과 스토리극으로 아프리카의 다채롭고 생동감 넘치는 화려한 퍼포먼스를 보기만 하는 공연을 떠나 관객이 함께 해 1인 1악기로 전파적 아프리카 전통악기 켈베를 세팅해 아프리카의 작은 마을을 옮겨 놓은 듯한 무대를 선보인다. 팀명이자 작품명인 'Anya Fo(아냐포)'는 서아프리카의 말린게 부족의 말로 '다함께 연주하자'라는 뜻이다. 평화와 우리가 강조되어 있는 아프리카의 음악과 춤을 통해 경직된 껍데기를 벗어 버리고 함께 어우러지는 기쁨과 감동의 축제의 장을 펼치고자 공연을 보며 함께 연주하고, 연주자와 댄서의 몸짓과 리듬으로 함께 어우러져 즉흥적

리듬을 만들어가는 관객 참여형 공연이다. 관람권 예매는 오는 12일 오전 8시부터 현장 및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gimje.go.kr/art>)에서 동시 선착순 판매 한다. /김제=곽노태 기자



한국전통문화전당은 지난 10월 30일부터 11월 6일까지 중국 우한방직대학교에서 진행한 K-한지마를 복합문화공간을 활용한 글로벌 연계 프로그램 성과공유회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한국전통문화전당, 글로벌 연계 프로그램 성과공유회 개최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도영)은 지난 10월 30일부터 11월 6일까지 중국 우한방직대학교에서 진행한 K-한지마를 복합문화공간을 활용한 글로벌 연계 프로그램 성과공유회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성과공유회는 프로그램을 통해 개발된 한지모자와 K-한지마을에서 제작된 한지상 등의 결과물을 선보이는 글로벌 교육 교류 활동으로 기획됐다. 성과공유회에는 전당을 비롯해 중국 우한방직대학교, 군장대학교 JINC3.0 사업단 패션산업과가 참여해 K-한지마을을 한지로 개발된 창작 체험키트 활용 한지공예 워크숍, 한지상 전시 및 패션쇼 순으로 진행됐다.

앞서 전당은 8월부터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 사업)의 일환으로 'K-한지마을' 자원을 활용한 글로벌 전통문화·관광 생태계 조성' 사업을 추진했다. 이와 관련, 중국 우한방직대학교의 남미령 교수 외 4인을 초청해 한지를 활용한 창작 체험키트 개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김도영 원장은 "K-한지마을 복합문화공간에서 개발된 창의적 아이디어 결과물을 선보인 이번 성과공유회가 글로벌 문화창조 생태계 조성을 위한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며 "한지문화 중심지인 전주의 K-한지마을을 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속! 전주매일 창간

산림의 미래까지 창조로 신뢰받는

SJ 장수군산림조합

토지구입자금
임업인대출

임업경영 또는 임산물생산 목적으로 자가사업할 마땅한 필요한 토지구입자금

- ▶대출대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중 농산보 신용보증서 발급 가능한 자
- ▶대출한도: 소요자금(토지매매대금 등 잔금기준)의 80% 이내
- ▶지원대상토지: 임업경영 또는 임산물 생산 활동에 필요한 사업부지 (임야 전·탈 등)를 구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출가능

개인사업자
대박대출

운영자금 및 사업자금

- ▶대출대상: 사업자 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 ▶대출한도: 감당가능 시세 대비 최고 80% 이내
- ▶지원대상토지: 전국에 있는 토지, 임야, 주택, 상가, 공장, 햇살론보증서 등

- ▶ **조합원 가입안내**
해당구역 안에 주소 또는 산림이 있는 산림소유자
해당구역 안에 주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임업인
- ▶ **조합원 가입혜택**
당순이익 발생시 배당금 지급
산림경영에 필요한 정보제공 및 안내
선거권·의결권 등을 통한 직접적인 조합운영 참여
예금은 3천만원까지 이자소득세 14%감면
- ▶ **조합원 가입방법**
신분증사본, 임야대장 또는 임야 주소

우55633 장수군 장수읍 준비길9 T 063)351-5030 F 063)351-5035

소상공인 정책자금 /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대출한도: 최고 1억, 금리: 2%~2.77%

산림사업 종합자금 / 대출대상: 임업인, 대출한도: 최고 3억, 금리: 1%~3%